

VI-4. 문항카드: 논술우수자전형(인문계열)

[성신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교시) / 문항 1~2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 도덕과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인류세, 이상 기후, 기후정의, 환경윤리, 과학기술과 윤리, 자연관, 생태학적 윤리, 책임윤리, 세대 간 정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예상소요시간	100분	

2. 문항 및 제시문

1) 문항

【문제 1】

<가> 현상을 <나>,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각 평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가> 문제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처방을 논술하시오.(900±100자)

【문제 2】

<라>와 <마>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각각 세 가지 근거를 밝히고 있다. 두 제시문 중 하나를 선택해 그 속에 포함된 주장과 세 근거를 요약하고, 그 근거 중 두 가지를 비판한 다음, 그 비판에 근거해 캘리포니아주의 다음 제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900±100자)

2020년 6월 25일, 캘리포니아주 대기환경청은 친환경트럭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4년부터는 차량 타입에 따라 5~9%, 2030년에는 30~50%, 2045년에는 100% 친환경차 판매가 의무화된다. 의무 판매 대상이 되는 트럭은 3.8 톤 이상의 중대형 상용차로 픽업트럭 등 경트럭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제시문

<가>

노벨상 수상자인 파울 크뤼천은 2000년 'Global Change Newsletter'에 기고한 '인류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지구'는 더 이상 홀로세가 아니고, '인류세'라는 새 지질연대를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질연대 구분은 화산폭발, 판구조 운동, 소행성 충돌 등 지구 안팎의 대규모 물리적 운동에 의해 각 지층의 화석을 이루는 생물종이 급격히 달라질 때 이루어진다. 크뤼천의 주장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비롯된 인간 활동의 영역은 대단히 왕성하게 확대되어 지구 환경과 시스템을 교란하기에 이르렀고, 초자연의 거대한 힘과 겨룰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인류세의 징조는 다양하다. 2019년 말, 호주 빅토리아주 남동쪽 밀라쿠타를 방문했던 리타 가족은 서쪽에서부터 산불이 번져온다는 뉴스를 접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아침이 되어도 재가 태양을 가리고 있어 여전히 어두운 밤과 같았다. 사이렌과 자동차 경적음에 죽음의 공포를 느낀 리타 가족은 바닷가로 대피했고, 사흘이 지나서야 해군에 의해 구조되었다. 2019년 9월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산발적으로 시작된 이 산불은 2020년 5월까지 이어져 한국의 63%나 되는 면적을 전소시켰고, 야생의 캥거루와 코알라 등은 멸종을 걱정할 만큼 불에 타죽었다.

아메리카대륙과 아시아대륙에서도 올해 유사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 전국합동화재센터가 집계한 2020년 대형 산불은 85건이었고, 기상학자들은 페루 앞바다의 해수온이 낮아지면서 평년보다 따뜻한 고기압이 발달했고 이에 따른 건조현상이 화재를 부추킨 것이라 진단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올해 여름 양쯔강 물이 불어나 700년 역사의 사원 '관인거'가 물에 잠겼다. 6월부터 폭우가 내려 최소 14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3,87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한 달 넘게 폭우가 이어지자 안후이성 당국은 불어난 물을 방류하기 위해 추허강 댐을 폭파했다.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토지매립으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지구상 경제활동이 주춤한 가운데도 이례적인 이상 기후 현상은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

* 45억년 지구 역사는 지층의 현저한 변화를 기준으로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되며, 각 대(era)는 다시 여러 기(period)로 나뉜다. 예를 들어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신생대는 제3기와 제4기로 나뉜다. 지금은 신생대 제4기에 속하는데, 이는 다시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의 두 세(epoch)로 나뉜다. 신생대 제4기에 네 번의 빙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온난해진 약 만 년간의 시기가 현재의 홀로세이다.

<나>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는 산업화에서 초래되었고 때로는 재앙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비판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 파괴적 능력이 커진 만큼 재앙을 예견하고 대처하는 인간의 능력도 신장되기 때문이다. 역사가 인류의 적응성을 입증하며, 인류세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도전 과제일 뿐이다. 위험의 양상이 복잡하고, 범위가 전지구적이라 하더라도 지구가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인류세에 출현하는 새로운 양상의 위기는 인류의 독창성과 기술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인류세는 인류를 도약하게 하는 위대한 지질연대가 될 것이다. 정보의 신속한 소통과 공유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세계 도처의 기상 이변을 더욱 자주 목도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역사를 보라. 인간은 극적으로 자연체계를 변화시켜왔다. 하지만 지구는 더욱 생산적으로 변모했고 인류를 더 잘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역학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위기를 이윤 창출의 기회로 삼

는 자본의 속성과 민첩성은 신산업 투자와 신기술 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수소연료차량 개발 등 녹색산업혁명은 경제성을 획득하며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전지구적 위기가 가시화될수록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지구공학적 방책도 다채롭게 제안될 것이다. 더구나 인류세의 인간은 향상된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향상된 신체적 능력을 갖춘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인류세의 자연은 홀로세의 자연이 아니라고 말하는 만큼 인류세의 인간은 홀로세의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기술의 활용은 무한하며, 많은 부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다>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는 단순히 생태계의 변형이 아니라 지구시스템의 질적 변화를 함축한다. 인류세는 지구시스템 전반의 기능에 생긴 ‘균열’을 설명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역설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인류세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적 경제 성장, 자원 이용, 쓰레기양과 관련한 모든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더불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거대한 가속의 시대’라 불리는 이 시대에 급증했다. 이제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유형의 지구, 인간과 인간의 기술이 과거와 비교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지구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근대 초기 자연은 ‘극도로 괴롭힘으로써 비밀을 밝혀내 인간이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다가, 최근에는 ‘종말의 위기’로부터 우리가 ‘구조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자연이 우리를 위해 복무하거나 희생한다는 이러한 관점은 인류세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 자연을 표현하는 낱말은 ‘깨어난 거인’, ‘반격하고 복수하는’ 가이아, ‘죽음의 소용돌이’로 변모하고 있다. 자연은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시름하는, 수동적이고 파괴되기 쉬운 대상이 아니다. 어머니 지구가 두 팔을 벌린다면, 우리를 안으려는 것이 아니라 으스스하게 위협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목표는 ‘자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구시스템을 기술을 통해 통제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이다. 우리가 지구시스템에 초래한 혼란 중 일부는 되돌릴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영향은 수천 년간 지속될 것이다. 인류세에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인간에서 비롯된 급격한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 피할 수 없는 것들에 적응하는 방법, 장기간에 걸쳐 지구시스템에 가해지는 피해를 개선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라>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경제문제 외에 ‘언제 생산할 것인가?’라는 세대간 자원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스 요나스는 “네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라는 새로운 생태학적 정언명법을 제시하면서 자연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먼 미래세대에 미치게 될 결과까지도 예견하여 사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세대의 잘못으로 미래세대가 고통스럽거나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공포’의 원칙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자신의 유전적 질환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아이가 태어날 것이 확실히 예견된다고 해보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아이의 삶에 사전적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로 여긴다.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존재를 보장하고 적어도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감과도 부합한다.

현세대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단순히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 모두 설명될 수 없다.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부모는 자식과 손자세대와 정서적 유대를 맺고, 때로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까지 돌봄과 배려를 실천하며 이를 인간다운 삶의 기초로 삼고 있다. 인류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서 세대간의 정서적 유대를 미래세대로까지 확장시킬 의무가 있으며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돌봄의 윤리가 필수적이다. 현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은 비호혜적이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에드먼드 버크에 따르면 국가 사회는 과거, 현재,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먼 미래 세대 사이의 도덕적 연대이다. 국가 사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자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온 역사적, 초세대적 공동체이므로 자기 세대만의 관점으로 자원분배의 형평성을 바라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자연자원을 공유하는 인류 안에는 미래세대도 전부 포함되어야 한다. 미래세대가 그 후손세대를 위해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미래세대가 필요한 물질·인적자원 및 자연환경을 조성해줄 의무가 있다.

<마>

아직 태어나지 않은 먼 미래세대에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인류애의 확장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간 도덕 능력의 위대함과 숭고함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관계에 대한 단순한 생각에 기인하며, 현재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떠안길 뿐만 아니라, 비효율성을 조장한다.

흔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하자원을 우리 세대가 너무 많이 써버리면 안 되는 이유로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든다. 그렇지만 자원부족에 시달리는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자원 정책이 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세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자원을 아끼며 불편을 감수할 경우 달라진 삶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 다른 자식을 낳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간단하게 계산되는 문제가 아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는 또한 현재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여건을 갖춘 어떤 부유한 가정의 화목한 부부가 있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그 부부는 원치 않더라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 미래세대인 아이의 행복을 지켜줄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불합리한 요구는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까지, 큰 결과에서 작은 결과까지 다방면에서 빚발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가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현실에 눈감게 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환경에 해를 끼치는 상품을 사지 않는 선진국의 윤리적 소비는 친환경적 생산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제3세계 빈곤층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든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현재 세대의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전이될 뿐이다.

우리가 살펴야 할 미래세대는 곧 태어날 뱃속의 아이까지로 충분하다. 진화는 인간에게 매우 제한된 도덕적 사유 능력만을 허락했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 지나친 도덕적 요구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이타적 행동만을 낳을 뿐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착한 일을 한 번 하고 나면 ‘도덕적 허가 효과’로 선한 행동을 덜 실천하려는 심리적 성향이 있다고 한다. 효과가 불투명한 먼 미래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어린 세대에게 당장 혜택을 주는 올바른 행동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3.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는 파울 크뤼천이 주장하는 ‘인류세’를 소개하며, 교과서와 이론서 및 UN 환경 관련 보고서, 그리고 사례에 관련된 기사 내용을 발췌·재구성하였다. 이 제시문은 2020년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의 이례적인 대규모 산불과 아시아 대륙의 이상 기후 현상에 의한 홍수를 사례로 하여 인류세의 여러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관련 교과서:

- 박철웅 외(2020), 『세계지리』 (p.45, 57, pp.237~239), 천재교육
- 이경호 외(2020), 『정치와 법』 (pp. 180~181), 비상교육
- 이병인 외(2020), 『세계사』 (pp. 210~211), 비상교육

- 제시문 <나>는 산업화로 인해 가속화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등 생태계의 변이에 대해 너무 비관하기보다, 지식 향상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세의 새로운 지층을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다가올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교과서:

- 이병인 외(2020), 『세계사』 (pp. 210~211), 비상교육

- 제시문 <다>는 인류세의 도래에 따른 생태 시스템의 균열이 단순한 생태계의 변화로 받아들이기에는 자연의 역습이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전개된 경제성장은 자본이 축적되는 만큼 자원의 소비와 쓰레기 배출의 양도 증대시켰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여러 차원에서의 수치 증가는 엄청난 규모로 가속화되었고, 이는 지구시스템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자연은 이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인류를 위협하는 대상이 되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인간에 의해 비롯된 급격한 변화 속도의 완화와 적응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교과서:

- 박철웅 외(2020), 『세계지리』 (p. 179, pp. 192~198), 미래엔

김국현 외(2017), 『생활과 윤리』 (pp. 147~148), 비상교육

이병인 외(2020), 『세계사』 (pp. 210~211), 비상교육

- 제시문 <라>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하는가에 대한 경제문제에 덧붙여 언제 생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세대 간 자원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 자원의 가용량 등에 대해 미래 세대의 수요를 예측하여 윤리적 소비를 지향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버크가 말한 바와 같이 초세대적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는 미래세대가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데 필요한 물질·인적자원 및 자연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관련 교과서:

박철웅 외(2020), 『세계지리』 (pp. 178~181), 미래엔

김국현 외(2017), 『생활과 윤리』 (pp. 144~146), 비상교육

유종열 외(2020), 『경제』 (pp. 14~16), 비상교육

- 제시문 <마>는 제시문 <라>와 대립하여, 모호한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참된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인지에 대한 반문을 제기한다. 어느 정도의 인내와 얼마만큼의 불편 감소가 미래 세대를 위한 윤리적 소비가 될 수 있는지 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세대에게 도덕이라는 미명하에 지나친 부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재 어린 세대들에게 불합리한 요구가 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칫 오지도 않은 미래세대에 대한 지나친 도덕적 요구가 현세대에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이타적 행동을 낳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계층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교과서:

유종열 외(2020), 『경제』 (pp. 17~20, p. 81), 비상교육

고형진 외(2020), 『독서』 (pp. 74~78), 비상교육

이병인 외(2020), 『세계사』 (pp. 212~213), 비상교육

4. 출제의도

- 이번 인문계열 1교시 논술 고사는 지난 3년간의 문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경제>, <세계사>, <독서>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용하게끔 함으로써,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포괄하는 종합적 고차 사고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하나의 문제 사례를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와 제시문을 배치하고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폭과 깊이를 갖춘 종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고등학생 수준의 인문적 소양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 이번 논술 고사는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명명할 만큼 지구 환경과 기후 등이 급변하는 상황을 소재로 삼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응시자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인류세를 정의하고 기상 이변에 대처하는 상반된 관점을 제시문에서 파악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도록 함으로써 논리적 분석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현재의 행위가 먼 미래세대의 존속과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류세의 상황에서 현세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 책임 의식을 가져하는지를 판단해보도록 하였다. 상반된 두 입장을 지지하는 세 근거를 제시문에 소개하고 각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문제1]과 [문제2]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각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각각의 논지를 전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5.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영역별 내용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12생윤01-03]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일상의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p.39)	제시문 <라> <마>

	성취 기준 2	(4) 과학과 윤리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p.43)	제시문 <나> <다>
	성취 기준 3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12생윤06-03]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p.45)	제시문 <마>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4) 사회사상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p.59)	제시문 <나> <다>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 삶의 이해와 환경 (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p.123)	제시문 <가> <나> <다>
	성취 기준 2	1. 삶의 이해와 환경 (2) 자연환경과 인간 [10통사02-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10통사02-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p.125)	제시문 <가> <나> <다>
	성취 기준 3	2. 인간과 공동체 (6)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1]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	제시문 <라> <마>

		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p.133)	
성취 기준 4		3. 사회 변화와 공존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10통사09-03]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p.138)	제시문 <가> <나> <다>
과목명: 세계지리			관련
성취 기준 1		(8) 공존과 평화의 세계 [12세지08-02]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나 생태 발자국, 가뭄 지수 등의 지표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12세지08-03]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주요 노력들을 조사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에 대해 토론한다.(p.191)	제시문 <가> <나> <다>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 기준 1		(6) 현대 세계의 변화 [12세사06-02] 세계화와 과학·기술 혁명이 가져온 현대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p.215)	제시문 <가> <나> <다>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12경제01-01]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p.220)	제시문 <라> <마>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p.250)	제시문 <마>
성취 기준 2		(5) 현대의 사회 변동 [12사문05-04]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p.252)	제시문 <가> <나> <다>

나) 자료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교과서 등)	재구성 여부
인류세: 거대한 전환 앞에 선 인간과 지구 시스템	Clive Hamilton (정서진 옮김)	이상북스	2018	16~45	교과서 외 제시문 <가> <나> <다>	○
인류세의 모험: 우리가 만든 지구의 심장을 여행하다	Gaia Vince (김명주 옮김)	곰출판	2018	23~25	교과서 외 제시문 <가> <나> <다>	○
포스트 휴먼이 몰려온다: AI시대, 다시 인간의 길을 여는 키워드 8	신상규 외	아카넷	2020	235~239	교과서 외 제시문 <가> <나> <다>	○
신문기사 (“미국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대형 산불 원인”)	.	로이터 연합뉴스	2020.9.11		교과서 외 제시문 <가>	○
신문기사 (“온난화 따른 인도양 쌍극화: 호주가 불탄다.”)	이재호	한겨레 21	2020.9.20		교과서 외 제시문 <가>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17	146~147	교과서 제시문 <라>	○
경제	유종열 외	비상	2020	16	교과서 제시문 <라>	○
EBS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조석영 외	EBS	2020	105	교과서 외 제시문 <라>	○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H. 요나스 (이진우 옮김)	서광사	1994	84~86	교과서 외 제시문 <라>	○
세대 간 정의의 자유공동체주의적 접근	오병선	법철학연구	2003	7~9	교과서 외 제시문 <라>	○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20	74~78	교과서 제시문 <마>	○
처음 읽는 윤리학	주동률 외	동녘	2017	620~622	교과서 외 제시문 <마>	○
신문기사 (“캘리포니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의무화 도입”)	이재일	매일경제 증권센터	2020.6.29		교과서 외 문제 2 <보기>	○

6. 문항 해설

○ 【문제1】

- 본 문제는 제시문 <나>와 <다>로부터 인류세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관점에 따라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 즉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명명할 만큼 지구 환경과 기후 등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각각의 평가를 수험생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오늘날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 등의 지구시스템 교란에 대해 어떤 처방이 적절한지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이끌어낼 것을 요구한다.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구성의 체계성과 내용의 완결성 및 문장 표현력을 통해서 응시자의 이해력, 논리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문 <나>와 <다>에서 소개한 인류세의 제반 문제를 극복하는 상반된 처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 즉 ‘지질층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인간의 지구시스템 교란 능력이 강대해졌으며 그런 교란의 결과로 통제하기 어려운 대규모 산불, 홍수 등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가>에서 예로 든 이상 기후나 천재지변이 인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그것이 인간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둘째, <나>와 <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에서 소개된 인류세의 징조들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나>는 인류세에 출현하는 위험의 양상이 복잡하고, 범위가 전지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구가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양상의 위험 역시 인간의 독창성과 기술 능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나>의 관점에서는 <가>에 소개된 호주나 미국의 대규모 산불이나 중국의 폭우 역시 인간에게서 비롯되기는 하였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저지하는 창의적 방책이나 기술이 개발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도 이는 국지적 재난에서 그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본다. 반면에 <다>는 인류세라는 개념을 통해 지구시스템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패러다임에서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다>에 따르면 호주나 미국의 산불, 중국의 폭우, 그리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격되는 이상 기후 현상은 인류를 ‘죽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인간을 ‘으스러뜨리려는’ 자연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징조라 할 수 있다.
- 셋째, <가>에 대한 <나>와 <다>의 평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가>에 대한 자신의 처방을 설득력 있게 논술하여야 한다. 수험생이 제안하는 처방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 처방이 <나>와 <다>의 평가에 대해 수험생이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을 유념하여 논의 선후의 연관성이 잘 드러나도록 답안을 서술하도록 한다. 처방의 관점에서 보면 먼저 <나>는 인류세의 위험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책으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조건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술 혁신이 적시적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간의 창의성을 쫓아주는 환경 조성을 제안할 것이다. 반면 <다>는 인류세의 위험을 극복하는 방책으로 기술을 통해 자연을 통제하

려는 오만한 시도를 포기할 것을 먼저 주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사소한 기술적 편의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지점에 현재 인류가 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 큰 책임 의식을 가지고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제안할 것이다. <나>의 처방은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기상 이변 등의 전지구적 환경 변화를 산업화 이후 진행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의 연장선상에서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통용되어온 인간의 기술적 성취가 앞으로도 유효하리라 과신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고, <다>의 처방은 반대로 위험을 과장하여 자연의 회복력에 지나친 우려를 표하면서 한편으로 인간 기술의 파괴적 잠재력은 과대평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기술의 적절한 활용 가능성은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수험생 자신의 처방은 <나>에 동의하거나 <다>에 동의하거나, 양쪽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나>나 <다>에 동의할 경우 반대쪽 관점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치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하며, 절충안을 채택할 경우 기술의 활용과 절제라는 상반된 전략이 어떻게 양립가능한 형태로 분담될 수 있는지를 적절히 제시하여야 한다.

○ 【문제2】

- 본 문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먼 미래세대에 대해 현세대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견해와 갖지 않는다는 견해를 논증하는 제시문 <라>와 <마>의 주장을 각각 세 가지 근거와 함께 정확히 파악한 다음, 수험생이 반박하고자 하는 견해를 <라>와 <마> 중에서 하나 선택해 그 속에 포함된 두 가지 근거를 비판하고, 그 비판에 근거해 캘리포니아주 대기환경청의 조치에 대해 평가해보도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이해 능력, 분석 능력, 적용 능력 및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본 문제에 대해 수험생은 <라>를 선택해 그 속에 포함된 두 가지 근거를 비판하고, 그에 입각해 친환경트럭 판매 의무화 제도를 평가하거나, <마>의 견해를 선택해 마찬가지로 경로를 밟을 수 있다. 어느 쪽 견해를 선택하든, 지지하는 세 가지 근거가 제시문에 나열되어 있으므로 비판 과정에서 응시자는 이 근거들의 핵심 내용과 그 근거가 갖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 <라>를 선택해 이를 비판할 경우 다음 내용이 답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라>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존속과 행복에 대해서도 현세대는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1)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은 현재 우리의 도덕감에 비추어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2)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관계는 정서적 유대로 묶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와 같아서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이 있듯이 현세대도 미래세대에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3)국가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초세대적 공동체이므로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한, 다른 구성원인 미래세대의 안녕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이 세 근거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므로 이중 둘을 골라 비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현재 세대의 도덕감으로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문은 불행하게 살 것이 예견되는 아이를 갖지 않는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자기가 직접 낳게 될 아이의 불행한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과 장래에 태어날 타인의 불행한 삶에 대해 현세대가 책임감을 갖는 것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사례의 그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고, 이웃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우리는 그 이웃도

미래세대를 돌보지 않았다고 비난해야 마땅할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 (2)부모-자식-손자 간의 관계와 현세대-먼 미래세대 간의 관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데 이것은 무리가 있다. 현세대가 먼 미래세대에 대해 희생과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기껏해야 자신과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에 한정될 뿐이다. 이것을 넘어 먼 미래세대 일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3)미래에도 개인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겠지만 그 국가가 먼 미래세대까지 포함한 도덕적 연대 공동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국가가 각 개인에게 지우는 의무는 현재보다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국민의 자유는 크게 제약될 것이다. 셋째, 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트럭 의무 판매제도 도입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2024년부터 2045년에 걸쳐 점차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이 정도의 조치는 해당 시기의 현세대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리라 예상되며, 만약 그렇다면 이 제도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친환경트럭의 환경 개선 효과와 현재 대기오염의 심각 정도에 대한 다른 판단을 근거로 다른 방향의 답안 작성도 가능함)

- <마>를 선택해 이를 비판할 경우 다음 내용이 답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존속과 행복에 대해 현세대에 책임과 의무를 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1)설령 현세대가 과도하게 자원을 사용했다하더라도 그런 남용 덕분에 피해를 입는 그 세대가 탄생하고 삶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하며, (2)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현재의 부조리, 불평등에 관대하게 되고, 결국 모든 책임을 가장 열악한 계층이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로 이어지며, (3)우리 도덕 능력의 한계 때문에 효과가 불투명한 먼 미래의 의무 부담은 현재 당장 혜택을 주는 올바른 행동들을 놓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이 세 근거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므로 이중 둘을 골라 비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미래세대가 누리는 삶 자체가 현재세대의 결정의 결과이므로 그 결정이 설령 무책임해보이더라도 비난할 수 없다는 첫 번째 근거의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자식을 확대하는 부모도 그 자식을 존재하게 했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인류세 상황에서는 현세의 무분별한 행위가 단지 미래세대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비참한 종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것과 현재의 부조리와 불평등 개선에 힘쓰는 것이 마치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이분법적 태도는 손쉬운 해결책만 고민하는 불성실의 산물일 뿐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등 둘을 동시에 성취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3)인간의 제한된 도덕적 사유 능력을 겸허히 인정해야한다는 지적은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것처럼 제한된 능력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구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도덕적 사유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여러 심리적 효과에 쉽게 휘둘린다고 하더라도 개인 차원의 그러한 실수를 예방할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장치가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의 비효율성은 사회적 차원의 제도 보완을 통해 극복가능하다. 셋째, 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트럭 의무 판매제도 도입은 미래세대를 위해 사전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2024년부터 2045년에 걸쳐 서서히 확대한다는 점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더욱이 이 정도의 조치는 해당 시기의 현세대에게 가장 이

익이 되는 조치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닐 가능성이 크며, 만약 그렇다면 이 제도는 매우 미흡하며 더욱 빠른 속도로 의무 판매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친환경트럭의 환경 개선 효과와 현재 대기오염의 심각 정도에 대한 다른 판단을 근거로 다른 방향의 답안 작성도 가능함)

7.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문제1	*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을 적절히 파악해 기술하였는가?	5
	* <나>와 <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에서 소개된 인류세의 징조들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적절히 보여주었는가?	15
	* <가>에 대한 <나>와 <다>의 평가를 비판적으로 적절히 검토하였는가?	15
	* <가>에 대한 자신의 처방을 설득력 있게 논술했는가?	10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했는가?	5
문제2	* 제시문 <라>나 <마>에 제시된 주장과 세 가지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 요약하였는가?	15
	* 요약된 세 가지 근거 중 둘을 선택해 적절히 비판하였는가?	20
	* 그 비판에 근거해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한 제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있게 논술했는가?	10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했는가?	5

[문제1]의 답안은 다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 첫째,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을 적절히 파악해 기술하기
둘째, <나>와 <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에서 소개된 인류세의 징조들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셋째, <가>에 대한 <나>와 <다>의 평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넷째, <가>에 대한 자신의 처방을 설득력 있게 논술하기

첫째 부분(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1점)

-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 즉 ‘지질층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인간의 지구시스템 교란 능력이 강대해졌으며 그런 교란의 결과로 통제하기 어려운 대규모 산불, 홍수 등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게 기술되었는지 점검한다.
- <가>에서 예로 든 이상 기후나 천재지변이 인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그것이 인간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기술하였는지 점검한다.

둘째 부분(1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3점)

- <나>의 관점에 맞게 <가>에서 소개된 인류세의 징조들이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점검한다.
- (1) 인류세에 출현하는 위험의 양상이 복잡하고, 범위가 전지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구가 인간

의 지식과 기술로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양상의 위험 역시 인간의 독창성과 기술 능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2) <가>에 소개된 호주나 미국의 대규모 산불이나 중국의 폭우 역시 인간에게서 비롯되기는 하였지만 빈번해질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저지하는 창의적 방책이나 기술이 개발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도 국지적 재난에서 그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이 드러나야 한다.

- <다>의 관점에 맞게 <가>에서 소개된 인류세의 징조들이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점검한다.

(1) 인류세를 지금의 유형과는 다른, 인간의 기술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지구로 지구시스템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본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하며, (2) 호주나 미국의 산불, 중국의 폭우, 그리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격되는 이상 기후 등은 인류를 ‘죽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인간을 ‘오스리뜨리려는’ 자연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징조라는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야 한다.

셋째 부분(1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3점)

- <나>의 인류세 평가에 대해 적절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한다.

인류세에 대한 <나>의 인식은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기상 이변 등의 전지구적 환경 변화를 산업화 이후 진행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의 연장선상에서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통용되어온 인간의 기술적 성취가 앞으로도 유효하리라 과신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와 같이 과학 기술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비판의 설득력을 높일 수도 있다.

- <다>의 인류세 평가에 대해 적절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한다.

인류세에 대한 <다>의 인식은 반대로 위험을 과장하고 자연의 회복력에 지나친 우려를 표하면서 한편으로 인간 기술의 파괴적 잠재력은 과대평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기술의 적절한 활용 가능성은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네팔에서 히말라야 빙설이 녹자 이를 수력 발전에 이용하는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의 활용을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일 수도 있다.

넷째 부분(10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2점)

- <가>에 대한 자신의 처방이 앞서 이루어진 <나>와 <다>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검토로부터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지 점검한다.

수험생 자신의 처방은 <나>에 동의하거나 <다>에 동의하거나, 양쪽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나>에 동의할 경우 인류세의 위험을 극복하는 방책으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조건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술 혁신이 적시적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간의 창의성을 꽃피우는 환경 조성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에 동의할 경우 인류세의 위험을 극복하는 방책으로 기술을 통해 자연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포기할 것을 먼저 주문하고, 아울러 우리가 누리는 사소한 기술적 편의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지점에 현재 인류가 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 큰 책임 의식을 가지고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절충안을 채택할 경우 기술의 활용과 절제라는 상반된 전략이 어떻게 양립가능한 형태로 분담될 수 있는지를 적절히 제시하여야 한다.

[문제2]의 답안은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첫째, 제시문 <라>나 <마>에 제시된 주장과 세 가지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 요약하기
- 둘째, 요약된 세 가지 근거 중 둘을 선택해 비판하기
- 셋째, 그 비판에 근거해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한 제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기

첫째 부분(15점, 세 근거 요약 답안 각각의 수준별 점수차 1점)

- <라>를 선택할 경우 다음 주장과 세 근거가 답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라>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존속과 행복에 대해서도 현세대는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1)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은 현재 우리의 도덕감에 비추어서도 당연히 받아들이어야 할 수 있으며, (2)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관계는 정서적 유대로 묶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와 같아서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이 있듯이 현세대도 미래세대에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3)국가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초세대적 공동체이므로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러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한 다른 구성원인 미래세대의 안녕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 <마>를 선택할 경우 다음 주장과 세 근거가 답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존속과 행복에 대해 현세대에 책임과 의무를 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1)설령 현세대가 과도하게 자원을 사용했다하더라도 그런 남용덕분에 피해를 입는 그 세대가 탄생하고 삶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하며, (2)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현재의 부조리, 불평등에 관대하게 되고, 결국 모든 책임을 가장 열악한 계층이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로 이어지며, (3)우리 도덕 능력의 한계 때문에 효과가 불투명한 먼 미래의 의무 부담은 현재 당장 혜택을 주는 올바른 행동들을 놓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부분(20점, 근거 비판 답안 각각의 수준별 점수차 2점)

- <라>를 선택해 이를 비판할 경우 다음 세 비판 중 두 가지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1)현재 세대의 도덕감으로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문은 불행하게 살 것이 예견되는 아이를 갖지 않는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자기가 직접 낳게 될 아이의 불행한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과 장래에 태어날 타인의 불행한 삶에 대해 현세대가 책임감을 갖는 것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사례의 그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고, 이웃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우리는 그 이웃도 미래세대를 돌보지 않았다고 비난해야 마땅할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

(2)부모-자식-손자 간의 관계와 현세대-먼 미래세대 간의 관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데 이것은 무리가 있다. 현세대가 먼 미래세대에 대해 희생과 책임을 저야하는 것은 기껏해야 자신과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에 한정될 뿐이다. 이것을 넘어 먼 미래세대 일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3)미래에도 개인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겠지만 그 국가가 먼 미래세대까지 포함한 도덕적 연대 공동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국가가 각 개인에게 지우는 의무는 현재보다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국민의 자유는 크게 제약될 것이다.

- <마>를 선택해 이를 비판할 경우 다음 세 비판 중 두 가지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1)미래세대가 누리는 삶 자체가 현재세대의 결정의 결과이므로 그 결정이 설령 무책임해보이더라도 비난할 수 없다는 첫 번째 근거의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도 그 자식을 존재하게 했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인류세 상황에서는 현세의 무분별한 행위가 단지 미래세대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비참한 종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것과 현재의 부조리와 불평등 개선에 힘쓰는 것이 마치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이분법적 태도는 손쉬운 해결책만 고민하는 불성실의 산물일 뿐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등 둘을 동시에 성취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3)인간의 제한된 도덕적 사유 능력을 겸허히 인정해야한다는 지적은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이처럼 제한된 능력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구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도덕적 사유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여러 심리적 효과에 쉽게 휘둘린다고 하더라도 개인 차원의 그러한 실수를 예방할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장치가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의 비효율성은 사회적 차원의 제도 보완을 통해 극복가능하다.

셋째 부분(10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2점)

- <라>를 선택해 이를 비판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트럭 의무 판매제도 도입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2024년부터 2045년에 걸쳐 점차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이 정도의 조치는 해당 시기의 현세대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리라 예상되며, 만약 그렇다면 이 제도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친환경트럭의 환경 개선 효과와 현재 대기오염의 심각 정도에 대한 다른 판단을 근거로 다른 방향의 답안 작성도 가능함)

- <마>를 선택해 이를 비판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트럭 의무 판매제도 도입은 미래세대를 위해 사전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2024년부터 2045년에 걸쳐 서서히 확대한다는 점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더욱이 이 정도의 조치는 해당 시기의 현세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조치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닐 가능성이 크며, 만약 그렇다면 이 제도는 매우 미흡하며 더욱 빠른 속도로 의무 판매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친환경트럭의 환경 개선 효과와 현재 대기오염의 심각 정도에 대한 다른 판단을 근거로 다른 방향의 답안 작성도 가능함)

▶ [문제1]의 네 부분 각각의 점수와 정확한 어법과 표현 점수(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1점) 및 [문제2]의 세 부분 각각의 점수와 정확한 어법과 표현 점수(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1점)를 모두 합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90점 이상
- 3등급: 85점 이상
- 4등급: 75점 이상
- 5등급: 60점 이상
- 6등급: 60점 미만

※ 각 문제별로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각 문제별로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700자~799자: 5점 감점, 600자~699자: 10점 감점, 600자 미만: 6등급, 백지답안: 7등급

8. 예시답안

○ [문제 1]

<가>는 인류세라는 새 지질층을 낳을 정도로 인간의 지구시스템 교란 능력이 강대해졌고 그런 교란의 결과 통제하기 어려운 대규모 산불, 홍수 등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인류세의 이러한 징조들에 대해 <나>는 지구는 여전히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이며 그 위험의 양상이 복잡하고, 범위가 전지구적이더라도 인간의 독창성과 기술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호주나 미국의 대규모 산불이나 중국의 폭우 역시 예방하거나 저지하는 창의적 방책이나 기술이 개발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도 국지적 재난에 그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본다. 반면 <다>는 인류세란 인간의 기술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지구로 지구시스템의 근본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뜻한다고 본다. 코로나19에도 여전한 이상 기후는 인류를 ‘죽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인간을 ‘오스러뜨리는’ 자연의 복수가 시작되는 징조라는 것이다.

<나>의 인식은 전지구적 환경 위기를 산업화 이후 진행된 생태계 오염 및 파괴의 연장선상에서만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기술적 성취가 앞으로도 유효하리라 과신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미세먼지처럼 과학기술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다>의 인식은 위험을 과장하고 자연의 회복력에 지나친 우려를 표하면서 기술의 파괴적 잠재력은 과대평가하는 한편, 그 기술의 적절한 활용 가능성은 과소평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빙설이 녹아 이를 이용할 수력발전을 도입한 네팔처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의 새로운 활용은 늘 열려 있기 때문이다.

나는 통제 가능한 위험에는 기술 혁신을, 불가능한 위험에는 원인 억제의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기술의 활용과 절제라는 상반된 전략을 양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신체까지 전 영역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도록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삶의 방식과 기술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이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 이는 어렵

지만 할 수 있는 일이다.(997자)

○ [문제 2] <마>를 선택해 요약, 비판하는 경우

<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존속과 행복에 대해 현세대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1)설령 현세대가 과도하게 자원을 사용했더라도 그런 남용덕분에 피해를 입는 그 세대가 탄생하고 삶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하며, (2)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현재의 부조리, 불평등에 관대하게 되고, 결국 모든 책임을 가장 열악한 계층이 떠안는 결과로 이어지며, (3)우리 도덕 능력의 한계 때문에 효과가 불투명한 미래의 의무 부담은 현재 당장 혜택을 주는 올바른 행동들을 놓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근거 (1), (2)에 대해서는 다음 비판이 가능하다. (1)미래세대가 누리는 삶 자체가 현재 세대의 결정의 결과이므로 그 결정이 설령 무책임해보이더라도 비난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도 그 자식을 존재하게 했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류세 상황에서는 현재의 무분별한 행위가 단지 미래세대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비참한 종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것과 현재의 부조리와 불평등 개선에 힘쓰는 것이 마치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이분법적 태도는 손쉬운 해결책만 고민하는 불성실의 산물일 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등 둘을 동시에 성취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친환경트럭 의무 판매제도 도입은 미래세대를 위해 사전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2024년부터 2045년에 걸쳐 서서히 확대한다는 점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더욱이 이 정도의 조치는 해당 시기의 현세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조치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의무 판매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996자)

(* 마지막 단락의 경우, 친환경트럭의 환경 개선 효과와 현재 대기오염의 심각 정도에 대한 다른 판단을 근거로 다른 방향의 답안 작성도 가능함)

[성신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교시) / 문항 1~2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 도덕과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그린 뉴딜,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경제, 탈원전 정책, 파리기후변화협약, 현실주의, 이상주의, 국제 관계, 자국 우선주의, 공공의 선
예상소요시간	100분	

2. 문항 및 제시문

(1) 문항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EU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의 주요 특징을 찾아 기술하고, EU의 정책과 제시문 <나>의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갖는 주요 특징을 기술하시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 소개된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에서 논하시오. (900±100자)

【문제 2】

제시문 <다>의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문 <라>에 기술된 미국의 사례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다른 하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대처 방안을 논하시오. (900±100자)

(2) 제시문

<가>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

한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 수립에 돌입하였다. 그린 뉴딜 정책은 지난 2019년 12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을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천명하면서부터 촉발되었다. EU는 그린 뉴딜을 통해 2050년까지 유럽의 탄소 순수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탄소 사용량 규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환경 정책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새롭게 발표된 환경 정책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수입품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다. 탄소 국경세의 도입은 세계 각국에 탄소 배출 감소를 권고하고, 탄소 저감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는 EU 국가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 보호가 경제적 이익으로 직결되는 정책이 예고된 만큼, 한국을 비롯하여 EU와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한국 정부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현재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과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임으로써, 발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전력 소비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의 백지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그린 뉴딜은 지금까지의 탈원전 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18%로 낮추는 대신에 액화천연가스(LNG)는 20%에서 37%로, 신재생에너지는 5%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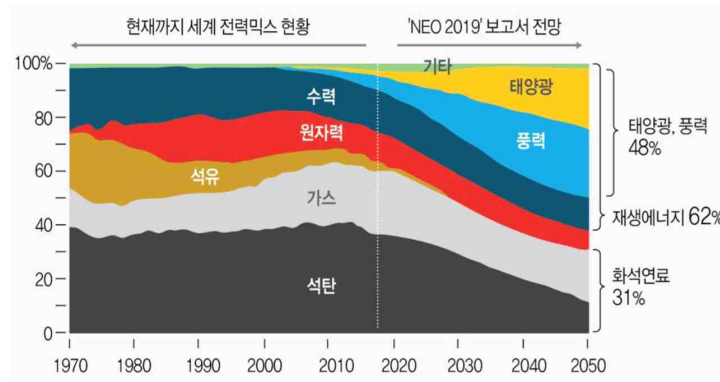
<나>

세계의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 대비 현재 전력생산량은 2만3천 TWh* 정도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 이르면 현재 대비 80% 증가한 전력생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2019년 NEO** 보고서에서 제시된 세계 전력생산 주요 공급원에 대한 이력을 [그림 1]에서 살펴보면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세계 전력생산량의 약 60%의 비중을 차지해왔다. 반면, 원자력 발전량은 소폭 상승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수력을 제외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아직까진 높지 않은 수준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는 한편,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발전소의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2050년에는 현재 대비 80% 증가한 4만 TWh 이상의 전력량을 생산해야 할 전망이다. 석탄 및 석유 등 화석연료의 비중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31%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IEA는 지구의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수력, 태양광, 풍력 등을 합친 재생에너지가 세계 전력생산량의 62%를 차지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한다.

* TWh: 테라와트(TW)×시간(h). 전력량의 단위

** NEO(New Energy Outlook): 전력생산 주요 공급원에 대한 전망



[그림 1] 전력믹스 추이 전망 (2019년 기준)

<다>

① 국제 관계는 국가 간의 힘의 논리를 통해 형성된다. 개별 국가를 통제할 세계 정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한 국가의 대외 정책에 대해 도덕적으로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고, 오직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가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 간의 분쟁은 이러한 차원에서의 정치·외교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거나 완전하지 않으며, 정치 개혁 혹은 교육을 통해 인간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국가는 이처럼 이기적인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 역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도덕적 원칙이 국가 간 정치 행위에 적용되기란 불가능하다.

② 국제 관계는 보편적인 선(善)에 의해 지배된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듯이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질서는 도덕과 국제 규범 등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 즉, 인간은 상호 협력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 간에도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국제 관계에서의 나쁜 행동은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국제 정치상의 구조와 제도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 간 분쟁은 서로에 대한 무지나 오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제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통한 사회의 진보는 가능하며,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때문에 현실이 실제로 어떤가를 설명하기보다는 세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의 갈등과 문제는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과 같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라>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전 세계적 합의이다. 이 협약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195개국의 합의로 채택되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연합(UN)에 제출한 후 이를 5년 마다 검토 받게 되며, 2023년 첫 점검이 이루어진다. 안토니우 구

테호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어 이미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전 세계적인 이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국제 사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결정했다. 파리에 서 결의된 이 협약이 미국의 노동자, 기업, 납세자에게 불공평한 경제적 부담을 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이탈함으로써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 대책의 큰 틀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이 이 협약에서 탈퇴하게 되면 일부 국가들이 미국에 동조하여 탈퇴 흐름에 올라탈 가능성도 있다. 환경학자들은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환경 규제에 동참하지 않음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가 흐트러지게 되면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3.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초로 세계 여러 나라 및 한국 정부가 최근 추진해 온 그린 뉴딜 정책을 다룬 기사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EU의 그린 뉴딜 정책을 사례로 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정부가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관련 교과서:

- 손영찬 외(2018), 『사회·문화』 (pp.198~199), 미래엔
- 변순용 외(2019), 『생활과 윤리』 (pp.144~147), 천재교육
- 정탁준 외(2019), 『생활과 윤리』 (pp.139~141), 지학사
- 박철웅 외(2018), 『한국지리』 (pp.79~81), 미래엔
- 김국현 외(2019), 『생활과 윤리』 (pp.144~147), 비상교육
- 정창우 외(2018), 『통합사회』 (pp.52~61, pp.270~273), 미래엔
- 박영민 외(2019), 『화법과 작문』 (pp.162~173), 비상교육
- 신유식 외(2018), 『국어』 (pp.116~133), 미래엔

- 제시문 <나>는 세계의 전력 수요와 발전연료별 전력 생산량을 다룬 국제기구 등의 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월간지의 일부와 발전연료별 전력량이 차지하는 비

중의 이력과 전망을 보여주는 그림을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제시문의 전반부는 최근까지의 화석연료, 원자력, 태양광과 풍력 등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량의 추이를 설명한다. 또한 제시문의 후반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구의 온도 상승 억제를 전제로 작성한 2050년까지의 발전원별 전력생산량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교과서:

- 정창우 외(2018), 『통합사회』 (pp.270~273), 미래엔
- 박철웅 외(2018), 『한국지리』 (pp.79~81), 미래엔
- 김국현 외(2019), 『생활과 윤리』 (pp.144~147), 비상교육
- 박영민 외(2019), 『화법과 작문』 (pp.162~173), 비상교육
- 신유식 외(2018), 『국어』 (pp.116~133), 미래엔

- 제시문 <다>의 ①과 ②는 각각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에 관한 『생활과 윤리』(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의 내용을 발췌·수정한 것이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 또는 국제 분쟁 해결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다. 전자는 국제 정치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권력의 투쟁이라고 보는 반면, 후자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과 도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실주의는 국가가 이기적인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역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반면, 이상주의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듯이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공조와 규범을 통해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관련교과서:

- 김국현 외(2019), 『생활과 윤리』 (pp.209~210), 비상교육
- 정탁준 외(2019), 『생활과 윤리』 (pp.202~203), 지학사
- 변순용 외(2019), 『생활과 윤리』 (p.208), 천재교육

- 제시문 <라>는 UN 주도의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최근 이로부터 탈퇴를 결정한 미국의 사례를 다룬 신문 기사에서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 협력 방안으로서의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파기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

국의 이러한 결정이 향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미칠 영향과 함께 실제로 미국의 협약 탈퇴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문제(온실가스 배출)를 다루고 있다.

관련교과서:

- 손영찬 외(2018), 『사회·문화』 (pp.198~199), 미래엔
- 변순용 외(2019), 『생활과 윤리』 (pp.144~147), 천재교육
- 정탁준 외(2019), 『생활과 윤리』 (pp.139~141), 지학사
- 박철웅 외(2018), 『한국지리』 (pp.79~81), 미래엔
- 김국현 외(2019), 『생활과 윤리』 (pp.144~147), 비상교육
- 정창우 외(2018), 『통합사회』 (pp.52~61), 미래엔

4. 출제의도

- 이번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논리적인 글쓰기 역량을 측정하고자 했다. 고등학교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개념들을 활용하여 구성했다. 그러므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어』, 『화법과 작문』,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한국지리』, 『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에서 다루는 주제인 ‘그린 뉴딜’,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경제’, ‘탈원전 정책’, ‘파리기후변화협약’, ‘현실주의’, ‘이상주의’, ‘국제 관계’, ‘자국 우선주의’, ‘공공의 선’ 등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다.
- 교과서의 지문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글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읽고, 이를 주어진 시간 내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지, 개념을 사례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문 내용의 비교, 분석, 적용, 평가 등을 별개로 작성하는 문항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완결된 답안을 작성하도록 문제를 출제했다.

5.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영역별 내용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p. 59)	제시문 <가> <나> <라>
	성취 기준 2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p. 61)	제시문 <가>~ <라>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p. 82)	제시문 <나> <라>
	성취 기준 2	[12화작03-06] 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담은 건의하는 글을 쓴다. (p. 82)	제시문 <가> <나> <라>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p. 94)	제시문 <가> <나> <라>
	성취 기준 2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p. 95)	제시문 <가>~ <라>
	성취 기준 3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p. 97)	제시문 <가> <나> <라>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1-01]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학문으로서 다루는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p. 39)	제시문 <다> <라>

	성취 기준 2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p. 41)	제시문 <다> <라>
	성취 기준 3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p. 43)	제시문 <가> <나>
	성취 기준 4	[12생윤06-03]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p. 45)	제시문 <다> <라>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p. 59)	제시문 <가> <라>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2-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p. 123)	제시문 <라>
	성취 기준 2	[10통사08-02] 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p. 134)	제시문 <다> <라>
	성취 기준 3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p. 136)	제시문 <나>
	과목명: 한국지리		관련
	성취 기준 1	[12한지03-03] 자연재해 및 기후 변화의 현상과 원인, 결과를 조사하고,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지속가능한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p. 163)	제시문 <나> <라>
	성취 기준 2	[12한지05-01] 자원의 특성과 공간 분포를 파악하고, 이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p. 166)	제시문 <나> <라>
	과목명: 세계지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세지03-05] 세계 주요 에너지 자원의 특성과 분포 특징을 조사하고, 에너지 생산 및 그 수요의 지역적 차이에 따른 국제적 이동 양상을 분석한다. (p. 180)	제시문 <가> <나>
	성취 기준 2	[12세지06-03]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지역 통합의 사례를 조사하고, 지역의 통합에 반대하는 분리 운동의 사례와 주요 요인을 탐구한다. (p. 186)	제시문 <라>
	성취 기준 3	[12세지08-02]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나 생태 발자국, 가뭄 지수 등의 지표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p. 189)	제시문 <가> <나>

			<라>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p. 220)	제시문 <가> <라>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 기준 1	[12정법06-02] 국제 문제(안보, 경제, 환경 등)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을 분석한다. (p. 238)	제시문 <가>~ <라>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5-04]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p. 252)	제시문 <가> <나> <라>

나) 자료 출처

※ 참고자료는 저자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를 명기하며, 교과서 자료와 교과서 외 자료로 구별하여 제시함.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교과서 등)	재구성여부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	유레카	2020.5	438호	제시문 <가>	○
그린 뉴딜, ‘에너지 대전환’ 신호탄 될듯... 탈원전-신재생에너지가 정책 핵심 (신문기사)	한상준	동아일보	2020.5.25	-	제시문 <가>	○
문제인 정부 탈원전 정책 일지 (신문기사)	박선영	매경미디어	2018.7.26	-	제시문 <가>	○
전력믹스 추이 전망 (신문기사)	박영석	연합뉴스	2019	-	교과서 외 제시문 <나>	○
‘New Energy Outlook 2019’ 보고서	Atin Jain et al.	Bloomberg New Energy Outlook	2019	-	교과서 외 제시문 <나>	○
세계원전 수출시장 현황 및 전망 (신문기사)	정용훈	전기신문	2020	-	교과서 외 제시문 <나>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출판	2019	209-210	교과서	○

					제시문 <다>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9	208	교과서 제시문 <다>	○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19	202-203	교과서 제시문 <다>	○
한국지리	박철웅 외	미래엔	2018	79-81	교과서 제시문 <라>	○
트럼프, 파리기후협약 결국 탈퇴 (신문기사)	이진명, 문재용	매일경제	2017.6	-	교과서 외 제시문 <라>	○

6. 문항 해설

- 【문제 1】의 논제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통해 EU의 그린 뉴딜 정책과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여 서술하고, 세계전력발전량의 추이와 전망을 토대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을 분석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 제시문 <가>는 『사회·문화』(미래엔)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EU와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다른 신문 기사를 발췌·수정했다.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EU의 그린 뉴딜 정책이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조 내지는 개입 필요성에 의해 제안되었다는 점과 환경 문제의 해결이 경제적인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관련성을 제시문 <가>에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EU 그린 뉴딜 정책의 목표는 탄소 사용량의 규제를 강화하고 EU 회원국의 기업 보호를 위한 탄소국경세의 도입에 있다는 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EU의 정책은 EU내 기업들의 보호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비EU 교역국의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지문에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정책이 EU의 그린 뉴딜 정책과 차별화되는 주요 정책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제시문

<가>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문 <나>는 『사회·문화』(미래엔)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 전력 수요 및 발전연료별 전력 생산량과 관련하여, 전기 신문에서 인용한 세계에너지기구(IEA)에서 제시한 세계 전력 발전량에 관한 자료와 Bloomberg New Energy Outlook 보고서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추이와 2050년까지 지구의 기후 변화를 고려한 필요 전력량의 주요 공급원 전망을 다룬 기사를 발췌·재구성했다.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나>에서 앞으로 30년간 현재보다 전력발전량이 80% 증가해야하는 상황과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탄소 전력을 생산해내야 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점을 텍스트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탄소 발생량이 많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의 증가와 동시에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을 적어도 현재의 비중으로 유지해야할 필요성을 그래프와 텍스트를 통해서 읽어 내야 한다.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국제적인 추세에서는 탄소 배출에 제약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판 뉴딜정책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량의 증대와 더불어 탈원전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추세에 공조한다는 점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사고 방지 정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가 없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어서 찬성한다는 방향으로 기술할 수 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만으로 필요한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방향으로 기술할 수 있다.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만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방향으로 기술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에너지 정책을 제시한 정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필요 전력 수요, 국가 경쟁력 및 원전의 안정성과 같은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을 고려해서 주체적으로 비교, 검토 및 종합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선별하여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 2】는 국제 정치와 환경 문제의 연관성과 관련한 통합적 사고와 적응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시문 <다>에 나타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관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관점을 제시문 <라>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 관계 사례에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는 국제 관계에 대한 현실주의 관점과 이상주의 관점에 대한 내용을 발췌·재구성했다. 제시문 <라>는 미국이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한 것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다룬 신문 기사를 발췌·재구성했다.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먼저, 제시문 <다>를 통해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관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시문 <라>의 사례에 적용하여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의 탈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제시문 <라>의 사례를 국가 간 힘의 논리와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도덕적 원칙이 국가 간 정치 행위에 적용되기 힘들다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대외 정책은 오직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제시문 <라>에 언급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 간 협력과 공조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주의 관점보다는 이상주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즉,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듯이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도덕과 국제 규범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국가 역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국제 관계의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을 할 수 있다.

7.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50점

영역	세부내용	배점
이해력	• 제시문 <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였는가?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 EU의 정책과 제시문 <나>의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갖는 주요 특징을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가>의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시문	25

	<나>에 제시된 정보를 충실히 활용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논리적 표현력	•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10

1번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가>에 드러난 EU의 그린 뉴딜 정책의 특징을 기술한다.

둘째, EU의 그린 뉴딜 정책 및 제시문 <나>의 세계전력생산량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시문 <가>에 제시된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주요 특징을 파악한다.

셋째, 제시문 <가>에 제시된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EU의 그린 뉴딜 정책 및 제시문 <나>에 제시된 세계전력생산량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기술한다.

<문제 1>

- ① 제시문 <가>에서 EU의 그린 뉴딜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고 명확하게 서술한다.
- ② EU의 그린 뉴딜 정책 및 제시문 <나>의 세계전력생산량과 비교·분석하여, 제시문 <가>에 제시된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주요 특징을 파악한다.
- ③ 제시문 <가>에 제시된 EU의 그린 뉴딜 정책과 제시문 <나>에 제시된 세계전력량 추이 및 공급원별 비중을 제시한 정보를 충실히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이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 답안: 7등급 부여

【문제 2】배점 50점

영역	세부내용	배점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다>에 나타난 두 가지 관점, 즉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관점을 파악하고 있는가? 제시문 <라>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역행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결정에 대한 내용임을 이해하고 있는가?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다>의 이상주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사례를 비판하거나, 반대로 제시문 <다>의 현실주의 관점으로부터 제시문 <라>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가? 앞서 선택하지 않은 다른 하나의 관점을 토대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대처 방안에 관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 수 있는가? 	25
논리적 표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10

2번의 답안은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다>의 ①이 현실주의, ②가 이상주의 관점임을 파악하고,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문 <라>의 사례의 원인을 분석한다.

둘째,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하나의 관점을 적용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문제 2〉

- ① 제시문 <다>의 ①이 현실주의, ②가 이상주의 관점임을 파악한다.
- ② 제시문 <다>에서 파악한 각각의 관점을 <라>의 사례에 적용하여, 이를 정당화(현실주의 관점)하거나 비판(이상주의 관점)한다.
- ③ 제시문 <다>의 관점 중 앞서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입장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대처 방안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이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8.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에 기술된 EU의 그린 뉴딜 정책은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 간의 공조 필요성과 더불어 친환경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의 모델로 삼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기후 변화를 위해서 EU의 회원국들은 유럽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움과 동시에 EU와의 교역 국가들도 탄소 사용량을 규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일부 국가만이 아니라 각국의 공조를 유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전력 생산을 위해 고비용의 투자를 하고 있는 EU 내의 기업들이 국제 교역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여 해당 기업들을 보호하고 친환경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EU를 주요 교역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여서 탄소 국경세를 최소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이 가지는 특징은 EU와 같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대안적인 재생 에너지와 친환경이라고 여겨지는 액화천연가스(LNG)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EU의 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탈원전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문 <나>의 자료는 세계의 전력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필요한 전력량을 감당하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를 겸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탈원전 정책까지 고려하면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들의 전력 생산량이 EU 회원국보다 더 많아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 전력 수요의 비중에서 현재 대비 액화천연가스(LNG)를 17%, 신재생 에너지를 15% 증가시키고 원전의 비중을 12%로 감소시키면, 결국 화석 연료인 액화천연가스는 탄소배출이 적어 친환경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친환경이 아닌 탄소를 배출하는 전력은 현재 대비 약 20% 정도만 감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EU에 상당한 탄소 국경세를 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한국 기업들의 EU 내의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액화천연가스(LNG)를 화석연료로 봐서 탄소 배출 전력을 높여 기술할 수도 있으며, 액화천연가스는 화석연료이지만 탄소 배출이 타 화석연료보다 적어 친환경 에너지로 간주하여 기술할 수도 있음. 전자의 경우 예시 답안의 작성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서술할 수 있음. 제시문 <나>의 지문과 그래

프에 제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EU와 비슷한 탄소 저감 노력을 통한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침으로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및 이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EU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비록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재생에너지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필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탈원전 정책까지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포함하여 원자력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원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 등의 논리를 통하는 지지하는 근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어야 함.)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의 원인은 제시문 <다>의 현실주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집합체로 간주된다. 때문에 국제 관계는 국가 간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며 도덕적 원칙은 국제 정치 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의 의무는 자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라>의 미국 역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자국민들에게 불공평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 탈퇴를 결정한 것이다.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정책은 미국의 전통적 제조업을 위축시키고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에 집중하는 이러한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다. 미국의 이러한 대외 행보는 자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는 하나, 국제 공조를 무너뜨리고 공공의 선을 훼손하여 지구 구성원 모두의 손실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 제정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몇몇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시문 <다>의 이상주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듯이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때문에 인간 사이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하듯이 개별 국가 역시 상호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체결 역시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 제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주의 관점에 의하면, 국가 간 분쟁은 주로 무지나 오해, 잘못된 제도에 의해서 발생한다.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역시 해당 협약이 잘못된 제도라는 미국의 인식 내지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은 그것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손실을 야기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 간 협력이 보편적 가치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주의 관점에서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도덕과 규범이 널리 통용될 수 있다. 국제 규범이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을 때 그 규범은 결속력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미국의 사례와 같은 개별 국가의 국제 공조에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명분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평화, 공존과 같은 보편적 도덕 가치 위에서 국가 간 협력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